

알쏭달쏭 군사상식

무인기 명칭 유래 '벌들의 전쟁?'



수컷벌 전에 여왕벌 있었다

<드론>

英 무인기 대응해 美 해군 '드론' 제작... 벌 소리 유래설도



16일 자운대에서 열린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 행사에서 수소 드론이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비행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16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는 수소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본 수소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비약적으로 향상된 비행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드론은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비행시간은 30분 안팎이다. 그러나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면서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해졌다. 또 수소 연료 활용에 따라 적은 양의 연료로도 상대적으로 긴 비행이 가능하기에 기체의 소형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드론의 군사적 활용 폭이 대폭 향상된 것이다. 또 수소연료엔진 특유의 정숙성도 특징으로 꼽히지만 로터(프로펠러) 특유의 소음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드론의 군사적 활용은 우리 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무인드론이 미래 전장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미래 게임체인저로서 드론의 군사적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군도 이러한 인식 아래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드론은 감시·정찰·공격·방어·수송 등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야에서 군사적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드론의 시작이 '군사용'이라는 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로서 민간 기술이라고 여겨졌던 드론의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의 사전적 의미 중 하나는 '수컷 벌'이다. 최초의 드론이 영국의 무인기인 여왕벌(DH 82B QUEEN BEE)에 대응해 만들어지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1935년 윌리엄 스탠드리미 제독은 영국 해군의 무인기를 이용한 대공포 훈련을 보고, 미 해군에서도 대공포 훈련에 사용할 무인기 제작을 지시했다. 이때 영국의

무인기 이름이 여왕벌이었고, 이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수컷 벌(드론)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드론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인 '벌 등이 웅얼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다. 앞서 말한 드론의 모습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고정익 무인 항공기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인 드론이 미래 전장 지배한다'

우리 군 수소 드론 군사적 활용 시도

작전 현장 투입·인재 양성 등 박차

드론은 용도에 따라 정찰·감시 드론, 공격 드론, 방어 드론, 다목적 드론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조종이 쉬우면서 비행 안정성도 뛰어난 '쿼드콥터(Quadcopter·4개의 회전날개를 이용해 추진하는 방식)' 드론이 주목받고 있다. 쿼드콥터형 드론은 초소형에서 초대형까지 제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군이 수소를 드론 운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이런 쿼드콥터형 드론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드론은 현재는 물론 미래 우리 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다. 육군의 경우 이러한 인식 아래 드론보전투단을 창설하고, 권역별로 드론교육센터를 설치해 드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미 작전현장에서는 경계와 감시 작전에도 드론을 투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미래 보병대대 전투수행방안에 드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해·공군의 경우도 드론교육 과정과 훈련장을 마련해 각 군 특성에 맞게 운용을 시도하고 있다. 임채무 기자

1면 'K-수소경제'서 계속

이어 자운대 입구에 배치된 수소버스에 직접 탑승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소버스의 특징과 개발·보급 현황을 청취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뒤 "정부도 수소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어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보전 전투체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수소드론의 시연도 참관했다. 육군은 현재 드론이 미래전을 이끌 '게임 체인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드론보전 전투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복합체계인 드론보전 전투체계는 전투수행 기능은 물론 국가 재해·재난, 안보상황 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시연에 나선 수소드론은 기존 드론보다 비행시간이 4배 가까이 길어서 더 효과



16일 자운대에서 열린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재민(오른쪽 둘째) 국방부 차관 등 협약 당사자들과 협약을 주관한 정세균(왼쪽 셋째) 국무총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경원 기자

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소드론은 긴 비행시간 외에도 정숙성이 특징"이라며 "수소드론을 활용하면 더 은밀한 작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의 'K-방역'처럼 'K-수소경제'에서도 앞서 나가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다음 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게 될 정 총리는 행사를 마친 뒤 "이번 협약체결로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큰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 문제도 친환경적으로 해결해 나가

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대구지역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신임 간호장교 3명 등 국군대전병원 의료진을 만나 이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우리 군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맹수열 기자 ■ 편집=신연식 기자